

# 주보

2024. 9. 8.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윤광현**(교무) **김호성**(목회) **고영웅**(개척)

◆ 2024 표어 ◆  
오직 은혜로

- ◆ 2024 교회목표 ◆
- 1.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 2. 말씀과 감사로 열매 맺는 교회
  - 3.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새로운 도약 새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 주일에 배운

##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 요(John) 4:24 ..... 사회자  
Invocation ..... Presider

찬송 ..... 8장(통9장) 4절 ..... 다같이(일어서서)  
Hymn ..... Hymn No. 8 v. 4 .....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 The Apostles' Creed .....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 1부: 336장, 2·3·4부: 15장, 주일저녁: 20장 ..... 다같이  
Hymn ..... (통383장) (통55장) (통41장) ..... All Together

기도 ..... 기도자  
Prayer ..... Prayer

성경봉독 ..... 사회자  
Scripture Reading ..... Presider

1부 히(Heb.) 12:5~13

2·3·4부 히(Heb.) 11:13~14

5부 대학청년 계(Rev.) 2:12~17

주일저녁 신(Deut.) 34:4~7

찬양 ..... 찬양대  
Anthem ..... Choir

설교 ..... 설교자  
Sermon ..... Preacher

1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 윤광현 목사  
God's Good Plan ..... Rev. Kwanghyun Yoon

2·3·4부 나그네 길 가는 인생 ..... 이영훈 목사  
Life as Strangers on a Journey .....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 김남준 목사  
Live as a Christian ..... Rev. Namjun Kim

주일저녁 괜찮아요 ..... 신동석 목사  
It's All Right ..... Rev. Dongsuk Shin

기도와 결신 ..... 설교자  
Prayer & Altar-Call ..... Preacher

헌금기도 ..... 기도자  
Offering ..... Prayer

찬송 ..... 주기도문(635장) ..... 다같이(일어서서)  
Hymn ..... The Lord's Prayer .....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 Preacher

2024. 9. 11.

##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10분 이상영 목사 2부 13시 40분 이원재 목사 3부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1:2부: 288장(통204장) ..... 다같이  
 기도..... 1부: 김홍춘 장로 2부: 남오우 장로  
 성경봉독..... 1:2부: 갈(Gal.) 6:14, 3부: 잠(Prov.) 23:23..... 사회자  
 찬양..... 1부: 베테스다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십자가 신앙..... 1부: 이영훈 목사 2부: (스크린)  
 .....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마라..... 3부: 김민철B 목사  
 헌금기도..... 1부: 이동천 안수집사 2부: 정철규 안수집사

2024. 9. 13.

## 금요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신동석 목사..... 20시  
 기도..... 양진오 장로  
 성경봉독..... 고후(2Cor.) 4:7~10..... 사회자  
 찬양..... 깃세마네 찬양대  
 설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윤광현 목사

2024. 9. 14.

## 토요일예배순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사 회 / 김용준 목사..... 10시 10분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찬송..... 488장(통539장)..... 다같이  
 기도..... 안병광 장로  
 성경봉독..... 막(Mark) 16:15~18.....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베다니 연합찬양대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영훈 목사

##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주의 사랑 비컬 때	수요1부	베테스다	김호식	시편 150편
주일2부	베들레헬	윤 의 중	본향을 향하네	수요2부	시 온	조현호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일3부	예루살렘	여 자 경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수요3부	호 산 나	윤규섭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일4부	나 사 렛	이 중 진	본향을 향하네	금요성령회	깃세마네	다니엘진	나의 찬미
5부 대학청년	임마누엘	이수범	내 맘이 낙심되며	토요일예배	가브리엘	이용중	본향을 향하네
주일저녁	에베에셀	김정규	이 세상 험하고				

## 오늘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하졸임)  
 (히 11:13~14)

## 사 회

1부 06:40 변원중 목사  
 2부 08:40 김민철A 목사  
 3부 10:40 김성호B 목사  
 4부 12:35 백근배 목사  
 5부 대학청년 14:35 홍성복 목사  
 주일저녁 16:40 손영규 목사

## 대표기도

1부 김 남 중 장로  
 2부 김 귀 술 장로  
 3부 김천수B 장로  
 4부 안 병 광 장로  
 5부 유 승 민 장로  
 대학청년 주일저녁 이 기 성 장로

## 헌금기도

1부 박선규 안수집사  
 2부 장성원 안수집사  
 3부 이문주 안수집사  
 4부 허규홍 안수집사  
 5부 김수아 성 도  
 대학청년 주일저녁 김기호 안수집사

## 나그네 길 가는 인생

(Life as Strangers on a Journey)

히(Heb.) 11:13~14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마음 가운데 떠올릴 법한 질문입니다. 평생토록 힘쓰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방향에 대해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던 왕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1. 나그네 길 인생 (Life as strangers)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음을 증언합니다(히 11:13).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인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약 900km나 되었으며 낮은 한없이 뜨겁고 밤은 매서운 추위가 찾아드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외롭고 고난스러운 길은 야곱의 인생 전반을 요약해놓은 듯한 여정이었습니다. 훗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창 47:9). 야곱의 이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고향을 떠나 사는 다문화 가족과 같이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세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2. 우리가 가야 할 본향 (A country of our own to go)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히 11:14). 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그 본향의 집을 예비하시고자 먼저 그곳으로 가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요 14:2~3).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본향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교회소식

News Board

## ◆ 2024년도 장로장립 및 집사안수 · 권사취임예배

일시: 9월 8일(주일) 오후 12시 35분 4부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 ◆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일시: 9월 14일(토) 오전 10시 10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 ◆ 2024년도 서리집사 임명예배-일시: 9월 20일(금) 오후 8시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 예 배

### 1. 9월 둘째주 새벽예배

일시: 9월 9일(월)~14일(토) 새벽 4시 45분(토요일은 새벽 5시 45분) / 장소: 대성전(토요일은 예루살렘성전)  
설교: 김성호B 목사(9일~10일, 14일), 김호성 목사(11일~13일)

### 2. 여선교회 제65차 정기총회

일시: 9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안디옥성전 / 설교: 윤광현 목사

### 3. 권사회 제43차 정기총회

일시: 9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 설교: 윤광현 목사

### 4. (사)순복음선교연합회 제49회 정기총회

일시: 9월 20일(금) 오후 5시 / 장소: 더파티움(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 설교: 이영훈 목사

### 5. 장로회 9월 장로기도회-일시: 9월 20일(금) 오후 7시 / 장소: 벨엘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 6. 기도원 오산리 공원묘지와 크리스천메모리얼파크 성묘 오시는 가족을 위한 추석 추모 예배

일시: 9월 16일(월)~18일(수) 오전 11시, 오후 2시 / 장소: 기도원 예루살렘성전

## 안 내

###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대성전 지하3층은 새가족 전용 주차장이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 2. 교무국 통일대교구 제21회 9월 통일연합비전기도회

일시: 9월 15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세계선교센터 공용 102호 / 강사: 오혁진 목사

### 3. 수요 찬양예배(수요 3부예배)가 9월 4일부터 대성전에서 드리집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 다음 주간(9/15, 9/18, 9/20, 9/21) 대표기도(장로)

주일예배(9/15)						수요일예배(9/18)	1부:김성동 2부:손경하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9/20)	경욱현
강원섭	최낙진	임임택	유순형	오치영	성열안	토요일예배(9/21)	김의재

▣ 교회 대표전화(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 올레순의 전화위복

올레순은 노르웨이 북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희색빛 지붕의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이를 감싸고 있는 바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올레순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된 배경에는 대화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04년 1월 23일 밤, 올레순 도심의 목조 건물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목재로 지어져 있어 화재는 도시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결국 도시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화재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화재 이후, 올레순은 신속하게 도시재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럽과 노르웨이 전역에서 유능한 건축가들을 초청해 약 3년에 걸쳐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의 ‘아르누보’ 건축 양식으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올레순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레순 이야기는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의미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화재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히려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때로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